

“1억5000만원 주고 교사 됐다”... 은밀한 거래 성행

검찰 기소로 본 사립교사 채용 비리 실태

직원 등 9명 채용 7억대 챙긴 이사장·이사·실장 구속 기소 법인 실장 자택선 거액 수표·18억원 상당 금·은괴 발견도

사립학교 교사가 되는데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의 돈이 뒷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실 직원 채용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오갔다. 16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76)씨와 이사 B(65)씨, 법인실장 C(64)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억여원의 돈을 받고 교사와 직원 9명

을 채용했다. 친족관계인 이들은 받은 돈을 서로 나눠 썼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의 채용을 애타게 바라는 부모들이었다. 채용된 교사와 직원이 직접 돈을 건네기도 했다. 교사 채용 대가로 건넨 금액은 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다양했다. 담당 교과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채용된 교사의 한 어머니는 1억5000만원을, 또 다른 교사의 아버지는 1억원을 건넸고, 4000만원과 3000만원을 건넨 부모도 있었다. 이 학교 교사 D씨는 채용된 뒤 이사장 등에게 직접 1억5000만원을 제공했다. 같은 과목이어도 채용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다. 2012년 특정교과 채용때 제공한 금액이 1억원이던 것이 다음해에는 1억5000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돈을 건넨 시기는 대부분 기간제 교사로서 정교사로 채용된 때 이뤄졌다. 이 사학 법인에서만 돈을 건네고 채용된 교사가 6명에 달했다.

행정실 직원 채용에서도 금품이 오갔다. 직원 채용 거래 금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었다. 이사장 A씨와 이사 B씨, 법인실장 C씨는 이 법인 산하 중·고교 교사·직원 9명의 채용 대가로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C씨는 별도로 2명으로부터 75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집에서는 거액의 수표와 18억원 상당의 금괴와 은괴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금품 중 일부는 채용 비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16일 이들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돈을 건넨 10명에 대해서는 배임증거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예금채권과

압수한 수표 등에 대해 추정·보존명령을 청구,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압수 금괴 등에 대해서는 국제청과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만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친족관계에 있는 이들은 사립학교 운영권을 장악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교사·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부당한 특혜를 줬다”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해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교육청 관계자들과 ‘클린 피드백 회의’를 개최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교사 채용 사기 2억대 챙긴 브로커 3명 적발

광주지검 수사과는 16일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교사지망생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챌 혐의(사기)로 A(57)씨 등 취업사기 브로커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광주지역 사립 고등학교 2곳의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 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교사지망생 3명

으로부터 2억5500만원을 받아 가로챌 혐의다. 이들의 취업 사기는 해당 학교 이사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 채용 취업사기 고소고발 사건이 추가로 접수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관행을 이용해 구직자를 울리는 취업사기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채용 불공정 시비

승무직 9명 중 8명이 특정대학 출신... 필기시험도 없애 논란

지난달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난 광주도시철도공사 채용시험에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열차(지하철) 운전 관련업무를 맡는 승무직 채용 전형이 과거와 달리 필기시험이 빠지고 서류·면접전형으로만 이뤄진다는 합격자 9명 중 8명이 특정대학 출신으로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6일 사무(전산)·기계·승무직 등 3분야에 걸쳐 15명의 신규직원 합격자 발표를 했다. 사무직 1명, 기계직 6명, 승무직 8명이다. 승무직의 경우 합격자 발표 후 결원이 생겨 탈락자 가운데 고득점자 1명을 추가로 뽑아 채용인원이 모두 9명이 됐다. 지역제한과 자격증 소지 등 지원자격에 제한을 뒀지만 지원자는 사무직 26명, 기계직 80명, 승무직 95명으로 전체 경쟁률은 13.4대 1로 높았다. 승무직 관련 채용 공정성 시비는 합격자 발표 직후부터 일었다. 공사가 그간의 공채와 달리 승무직만 필기시험 전형을 없앴는데 합격자 9명 중 8명이 지역의 특정대학 출신으로 편중된 사

실이 알려졌다 때문이다. 해당 대학 교수가 광주도시철도공사 출신이란 점에 대해서도 응시자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승무직 면접 응시자 72명 중 특정대학 출신자가 절반 수준(38명·52.7%)인데도 합격자 9명 중 8명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확률적으로도 채용 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응시자들에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도시철도공사 측은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달라. 뽑아놔서 키워놓으면 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도 “이번 채용과정에서 원칙을 어기거나 불법이 개입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도시철도공사 측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광주도시철도공사와 달리 대전·부산 등 타지역 도시철도공사는 신규직원 채용시 승무직을 포함 전 직원을 필기시험을 거쳐 뽑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대표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광주환경공단도 공정성 시비를 없애려고 필기시험을 전형요소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길가에 핀 수국의 유혹

16일 오후 광주 서구 풍암동 길가에 수국이 활짝 피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수국은 여름을 대표하는 관상용 꽃으로 6~7월에 꽃을 피운다. /김진수기자 jeans@

가출 10대 소녀 ‘지옥의 14일’

채팅앱으로 만난 남자 2명에 성매매·폭행 시달리다 극적 탈출

지난 14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한 오피스텔에 갇힌 A(17)양은 무서웠다. 2주를 함께 지냈던 남성 2명이 속삭임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도 “이번 채용과정에서 원칙을 어기거나 불법이 개입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도시철도공사 측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광주도시철도공사와 달리 대전·부산 등 타지역 도시철도공사는 신규직원 채용시 승무직을 포함 전 직원을 필기시험을 거쳐 뽑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대표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광주환경공단도 공정성 시비를 없애려고 필기시험을 전형요소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와 임모(18)군을 만나면서부터다. 가출로 인해 지낼 곳이 필요했던 A양은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라는 말에 넘어가 훗시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악마의 속삭임은 다음날부터 시작됐다.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훗시 등의 핏에 넘어간 A양은 성매매를 시작했다. A양은 5일 간 10여명의 남성들을 만났지만 손에는 한푼도 쥐어지지 않았다. 훗시 등은 성매매를 위해 ‘살 좀 빠라’며 강제로 운동을 지시하기도 했다. A양은 지난 10일 오후에도 탈출을

시도했지만 훗시 등에게 붙잡혀 밧자루로 온몸을 두들겨 맞았다. 그리고 지난 14일까지 훗시 등의 감시를 받았다. 임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광주동부경찰은 16일 훗시와 임군을 준감금, 특수상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했다. 임군에게는 강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통화내역 등을 수사해 성매매 수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훗군 등이 3개월 전부터 오피스텔을 임대한 만큼 추가 범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민기자 kji@kwangju.co.kr

대기업 농약회사 과수농가 허락없이 살균제 실험 물의

나주 “2만여㎡ 피해” 호소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농약 제조 회사가 과수농가의 허락없이 주변에서 살균제 실험을 진행, 인근 과수농가의 피해가 속출했다. 16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이날 초 나주시 금천면 6곳의 과수농가에서 ‘누군가 배나무를 고사시키는 약품을 뿌렸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농가들은 “배나무 이파리가 까만 얼룩으로 뒤덮이고 배의 상품 가치가 떨어져 1년 농사를 망쳤다”며 “과수원 6곳 2만6000㎡가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국내 대기업 계열 농업 전문 업체가 피해 농가 근처 한 폐과수원에서 시범을 앞둔 살균제 실험을 최근 한 달 반 동안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폐과수원 주인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고 실험을 진행했지만, 주변 농가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 업체는 폐과수원 주인의 말만 듣고 바로 폐과수원에도 농민 허락 없이 살균제를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살균제 원본과 과수원에서 채취한 표본의 성분 비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며 “과과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마약 전과 출소후 또 환각 소란

○...최근 교도소를 출소한 30대 마약사범이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서행. ○...1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34)씨는 이날 새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종합병원에서 “가슴이 답답하다”며 고함치고 뛰어들며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탄로났다는 것. ○...경찰이 이씨를 붙잡아 마약류 간이시험 검사를 한 결과 그의 몸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혐의의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최근 출소한 인물로 병원 인근 모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뛰쳐나온 것 같다”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 상가건물 주택 나대지 임야 구함 062-714-2251

경매 추천물건

- ★광주 서구 화정동 청기와 주유소 대지 995㎡ 건물 469㎡ 감정가 17억 최저가 17억
- ★광주 북구 신안동 전대치과병원 앞 자동차 정비공장 대지 3,062㎡ 건물 1,229㎡ 감정가 31억7천 최저가 31억7천
- ★담양 무정면 봉안리공장 대지 6,552㎡ 건물 2,473㎡ 감정가 13억9천3백 최저가 7억8천만원
-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삼성전자 인근공장 대지 3293㎡ 건물 1495㎡ 감정가 17억5천1백 최저가 12억2천5백만원
- ★광주 북구 매곡동 4층 상가대지 739㎡ 건물 1,261㎡ 감정가 12억1천6백 최저가 8억5천1백만원 학원 식당 운영중
- ★함평 해보면 오산리 공장대지 3,306㎡ 건물 1,977㎡ 감정가 26억1천1백 최저가 14억6천2백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흥리 영암버스터미널 옆 1,948㎡ 일반상업지구 대로변 투자 최적합 감정가 8억8천6백 최저가 8억8천6백만원
- ★광주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 인근 2층 611㎡ 상가 감정가 14억8천4백 최저가 6억6천4백(45%)중, 한식당, 사무실 적합

수익형 추천 물건

- ★광주 북구 신원동 첨단 2지구 신축 4층 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 2천3백 용 18억 매매 48억
- ★광주 서구 화정동 6층 모텔유희 대지 416㎡ 건물 2,000㎡ 터미널뒤편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용 보증금 2억5천 월 1천4백 매매 27억(용13억포함)
- ★광주 광산구 우산동 80미터도로변 3층 무인텔 대지 2,372㎡ 건물 2,760㎡ 객실 36개 매매 58억(용28억포함), 수익성월평균8천만원
- ★광주 동구 자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 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 옆 매매 13억5천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송덕고 인근대지 222㎡ 건물 400㎡ 원룸 15개 안접방 3개 매매 6억3천 대출 2억포함 보증금 4천 월세 5백
- ★광주 자산동 조선대후문 원룸 16개 투룸 3개 수익용 최상 내부깨끗함 매매 7억3천5백만원
-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투자 추천 물건

-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상가 대지 675㎡ 남구청영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 가능 매매 24억원
-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판매장 상가건축적합 매매 13억원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펜션, 빌라 부지적합 4,000㎡ 주택 28세대 가능수익형 28억 선교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 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매매 48억(요양병원허가취득)
- ★광주 신수동 대로변 병원건물 대지 596㎡ 건물 948㎡ 주택 86㎡ 포함 매매 12억5천만원
-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 947㎡ 지하, 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13억5천
-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50㎡ 대로변 내부깨끗함 매매 4억(용 3억) 투자적합 직영추천

20년경력/부동산 매매,임대/전지역 신속 책임 중개/경,공매 NPL 컨설팅 010-6211-4585 조여사